

# 광주 월출동에 의료특화 산단 조성

### 2029년까지 14만평 2600억 투입... 오늘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AI·의료 융합 기업·연구센터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효과 기대

광주시가 오는 2029년까지 북구 월출동 일원에 2600여억원을 들여 의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광주시는 "월출동 일원 46만 2000㎡(14만평)에 '의료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산업단지'(의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행정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광주시는 용지비 1188억원, 조성비 897억원 등 모두 2671억원을 들여 2029년까지 의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정부 정책에도 보조를 맞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사업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개발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 지정 신청, 그린벨트 해제, 주민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사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은 광주 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해 기존 제조 방식에서 인공지능, 디지털, 의료를 융합한 선도 기업, 연구개발 센터, 기업 등을 유치한다. 광주시는 의료특화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생산 1546억원, 부가가치 671억원, 소득 유발 379억원, 신규 일자리 1200여명 등 다양한 경제효과와 함께 전남도와 공동으로 조성 추진중인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핵심 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제두 광주시 투자산단과장은 "광주 의료산업은 2021년 기준 500여개 기업, 1조 2600억원 매출, 직접고용 4500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이른바 앵커 기업을 유치하기에는 기반 여건이 부족하다"면서 "신규 의료특화단지 조성은 침체한 광주 경제에도 견인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15일부터 의료특화단지 조성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월출동, 용전동 일대 신규 산단 예정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

으로 지정한다. 기간은 2026년 5월 14일까지다. 광주시는 앞서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공고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은 주거 60㎡, 상업 150㎡, 공업 150㎡, 녹지 200㎡, 용도지역 지정 없는 구역 60㎡를 초과해 토지를 거래할 경우 계약 전 복구정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 외 지역 기준 면적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다. 이번 지정으로 광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기존 4개 지역 7.77㎢에서 5개 지역 8.23㎢로 확대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행위로 거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명령 불이행 때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김영록 전남지사, 10개월 연속 직무평가 1위 리얼미터 긍정평가 63.7%...강기정 광주시장 47.4%로 12위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 전국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1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4월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에게 대한 '잘한다'라는 긍정 평가는 63.7%로 가장 높았다. 김지사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취임 첫 달부터 10개월 연속 선두자리를 유지했다. 민선 7기에서도 김지사는 43개월 중 30차례 1위를 차지할 정도로도 민들로부터 직무수행 능력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긍정평가 2위는 이철우 경북지사(61.4%), 3위

는 김동연 경기지사(56.9%)가 차지했다. 15위에서 12위로 올라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한 47.4%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2023년 3월 24일-4월 1일, 4월 26일-5월 1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통계보정은 2022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했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3.8%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가족정원' 만들며 효·가족사랑 실천

### 전남도, 여수시 수국정원 조성... 주민 등 310여명 참여

전남도가 지난 12일 여수 장도 예술의 숲 일원에서 가족 사랑과 효 문화 확산을 위한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와 여수시가 후원하고 (사)숲속의 전남이 주관해 열렸다.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특별한 날을 기념하고 싶은 70가족과 (사)숲속의 전남 회원, 지역 주민 310여 명이 참석해 가족사랑 의미와 함께 2026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수국정원을 조성했다.

3대 가족정원은 할아버지-할머니, 엄마-아빠, 손자-소녀가 함께 가족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하는 정원으로 효와 가족사랑 실천의 의미를 담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여덟 번째로 조성된 수국정원은 초여름부터 여름 중순까지 3개월간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이며 다른 사람에게 감사, 풍요와 번영, 우아함과 아름다움 등 다양한 의미를 상징한다.

수국의 꽃 하나하나를 자작한 여럿이 모여 탐스러운 꽃다발을 이루듯 조부모, 부모, 손자-손녀는 가족의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수국 550여 그루를 정성껏 심었다.

3대 가족정원 만들기 행사는 (사)숲속의 전남과 함께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561가족, 2112명이 참여해 3220그루의 나무를 심어 숲 사랑·가족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귀향인재 채용 창업기업에 인건비

### 수도권 근무 경력 年 최대 2640만원·우수경력자 600만원

광주시가 귀향인재 등 우수 인력을 채용한 창업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광주 7년 이내 창업 기업으로 귀향하거나 현재 창업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인 우수 경력자들이다.

귀향 우수인력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거주 또는 근무한 광주 출신 가운데 관련 기업(직무) 업무 성과를 평가해 선정한다.

지난 1월 1일 이후부터 사업 신청 때까지 채용 또는 채용을 약속한 경우 1인 최대 월 220만원, 연간 264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한다.

우수 경력자는 창업 기업에서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1인당 연봉 상한분을 광주 시와 해당 기업이 1대 1로 매칭하되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 인재 역량,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

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29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사항, 광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gjtp.or.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최의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우수인력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몽글몽글 버블쇼에 웃음꽃... 광주 동구 어린이한마당 행사가 지난 13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일원에서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이 버블쇼를 관람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17~18일 5·18 묘지 시내버스 증회·연장

### 광주시, 특별교통대책 추진... 16~17일 금남로 차량통제

광주시는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시민 등의 교통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기념식이 열리는 국립5·18민주묘지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를 증회·연장 운행한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날인 17일 오전 8시

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국립5·18민주묘지로 운행하는 518번 버스를 32회 증회한다. 평소 장동동까지 운행하는 매일06번 노선은 18일 낮 12시부터 국립5·18민주묘지까지 연장 운행한다. 이 기간 기념식장까지 가는 버스는 총 254회 운행한다. 시는 또 기념식에 앞서 금남로 일원에서 열리는

5·18민주화운동 전야제 등 사전행사를 위해 16일 오전 9시부터 17일 자정까지 금남로1가-금남로3가(전일빌딩-금남로공원) 전구간 차량을 통제한다.

5·18민주광장 앞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19개 노선은 금남로4거리에서 우회 운행한다.

시는 5·18민주광장과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 교통 소통과 질서유지를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 모범운전자회, 경찰 등을 배치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주최 **Jangseong** 정성군 주관 **장성군축제위원회**

## 장성 향룡강 洪 제22회 길동무 꽃길축제

### 2023.5.19.-5.21. (나들이객 맞이 5.22.~5.29.)

향룡강변&홍길동테마파크